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2권 제2호, 2012년 7월
Global Health Nurs Vol.2 No.2, 94-104, July 2012 ISSN 2233-5560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유형 - Q 방법론적 접근 -

추은희[1] · 이해정[2] · 임연정[3]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1],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2],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3]

Types of Attitudes in Male Nursing Students toward Clinical Practice - Q Methodological Approach -

Choo, Eun Hee[1] · Lee, Haejung[2] · Lim, Yeonjung[3]

[1]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3]Master Student,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ypes of attitudes in male nursing students toward clinical practice. **Methods:** Using Q-methodology, this study described male nursing students' subjective understanding of clinical practice. Participants were 28 male nursing students and they were asked to sort 43 statements on issues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QUANL PC program. **Results:** Three types of perception of clinical practice in male nursing students were identified. The first type was the "positive self-development", who were affirmative in everything and always develop their ability to perform a nursing care. The second type was the "job-oriented dissatisfaction", who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nursing practice and had negative attitude. They weren't active and positive, and they were passive. The third type was the "amicable realistic-compromising", who were satisfied as type 1 to nursing care but were dissatisfied with clinical practice, and afraid of being still unfamiliar with clinical practice and making mistakes. Attitude of clinical practice was passive but was affirmative and realistic or practical sometimes.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s which tailored different type of attitude in male nursing students are recommended.

Key Words: Nursing Education Research, Q-sort, Nurses, Mal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직업 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성별에 따른 남녀 간의 직업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두정현과 김윤숙, 2008). 이러한 변화는 간호계에도 영향을 미쳐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의 학과와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간호학과와 간호직에도 점차 남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이정섭, 김남정, 두정현, 안지현과

주요어: 임상실습, Q-방법론, 남자 간호사

Corresponding author: Lee, Haejung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626-870, Korea.
Tel: +82-51-510-8344, Fax: +82-51-510-8308, E-mail: haejung@pusan.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추은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년 3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7일

© 2012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이윤경, 2005).

전체 간호사 대비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미국은 7.9%, 영국은 10.0%인 것으로 보고된다(Roth & Coleman, 2008). 현재 한국의 전체간호사 대비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1.8%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나 연도별 국가고시 응시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정규숙, 2012) 대한간호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남학생은 959명이 합격하였으며, 전체 합격자 가운데 7.5%를 차지하였다(정규숙, 2012).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도 2012년 처음으로 남자 사관생도를 선발한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전국 간호대학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00년 662명(전체 1.8%)에서 2011년 7968명(13.0%)으로 1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정규숙, 2012).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고(이경희, 1997), 기존의 간호직과 간호 교육은 여성 위주의 교육과정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O'Lynn, 2004), 사회적으로도 간호직은 여성 중심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팽배해 남성들의 간호학 진출에는 적잖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Clementson, 2008).

간호학 교육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에 대한 학문적 배려가 부족하고, 교과서마다 간호사를 여성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남자 간호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이 부족한 간호학 교수들의 교육적 접근은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소외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임상실습에서도 환자와의 신체 접촉에서도 남자간호사가 여자 환자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이나 대처에 대한 교육이 없어 여자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불편감에 대해 남자 간호대학생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며 여자 간호사를 더 선호하는 환자들의 선입견 등이 남자 간호대학생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부담이기도 하고 추후 직장생활에서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O'Lynn, 2004).

특히 임상실습은 남자 간호대학생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어려움이 많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만족스러운 교육영역으로 보고된다(최선주와 정양숙, 2008). 임상실습 시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환자, 보호자, 간호사들의 선입견으로 실제 실습을 임하는데 매우 큰 장애를 경험하며, 여자 간호대학생들보다 실습과정을 더 힘들어하고 불만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선주와 정양숙, 2008). 임상실습은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기술과 의사소통, 사정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의사결정, 시간관리, 문제해결 능력을 익히고 개발하는 기회로써(박송자, 1993; 권인수, 2002), 간호교육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남자 간호대학생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임상실습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남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에 중요한 기본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습에 대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관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추후 남자 간호사를 전문직 간호사로 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관점에서 인식, 느낌, 태도 등을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며 주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Q 방법론(김홍규, 2008)을 이용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유형을 분석하고 태도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이 훌륭한 전문직 간호사로 양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한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유형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표집방법

1) Q 모집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태도에 관하여 각 개인이 표현한 모든 진술문을 Q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Q 모집단은 남자 간호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임상실습의 태도에 관한 진술문이다.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논문과 문헌고찰,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총 13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별 면

담을 시행하였다. 개별 면담 대상은 2010년도 간호학과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2명과 현직 남자 간호사 2명으로 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각 학교의 학과장의 동의하에 공문을 보냈고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질문지 작성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 내용들은 "임상실습의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임상실습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임상실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나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상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상실습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자 간호대학생으로 임상실습에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상실습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가졌습니까?", "임상실습을 하면서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상실습 시 여자 간호대학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등 이다. 개방형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검토하여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여 총 573개의 진술문이 Q 모집단으로 추출되었다.

2) Q 모집단의 선정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주제에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비구조화 표본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Q 방법론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교수 1인과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확정하였으며 선정된 Q 표본은 4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3) P 표본의 선정

Q-방법론은 소표본 이론(small-sample doctrine)을 바탕으로(Stephenson, 1982) 개인적인 태도 또는 중요도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에 바탕을 둔 질적 조사연구로, 특수한 경우 1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의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0명 안팎의 대상자를 포함하기를 권장한다(김헌수와 원유미, 2000). 본 연구에서도 김헌수와 원유미(2000)의 제안에 따라 3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대상자 수 제한과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경상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 남자 간호대학생 28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4) Q 표본의 분류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7월 1일~8월 16일까지였으며 Q 진술문 카드는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들을 학생들이 쉽게 읽고 분류할 수 있도록 15×6.5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코팅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43개의 진술문을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가장 일치(긍정)하는 문항에서부터 가장 불일치(부정)하는 문항까지 11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정상분포에 가깝게 하기 위해 강제 분포시켰으며, 강제 분포화를 목적으로 정해 놓은 카드배열을 대상자에게 알려 주기 위해 넓은 책상 위에 카드 배열판을 나열하였다. Q 표본의 분류는 대상자에게 진술문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가려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치와 불일치의 중간 또는 판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진술문 중 가장 불일치(-5)와 가장 일치(+5)하는 것부터 선택하여 바깥에서부터 안쪽(중립, 0)으로 분류를 진행하게 하였다. Q 분류가 끝난 후 대상자가 가장 일치한다고 선택한 '+5'에 해당하는 카드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5'에 해당하는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하여 기록하였다. 각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Q 분류는 학생 개인이 정한 편안한 시간에 수행되었다. 카드를 읽고 나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넓은 책상을 준비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Q 분류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드를 배열함에 있어 정답은 없으며 언제든지 본인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 선택한 카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Q 분류 과정을 완료하는데 1인당 평균 30~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P 표본으로 수집된 2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여 코딩 처리하였다. 코딩의 점수화는 '가장 불일치'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일치' 11점으로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 요인 분석(Q-factor analysis)은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유형은 Eigen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유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은 각 유형 간의 주관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형 간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각 유형별로 Q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유형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유형의 주관성을 조사한 결과 3개의 유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2.2%를 설명하였다.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1이 34.1%, 유형 2가 12.9%, 유형 3이 5.2%로 나타났다.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때, 유형 1과 유형 2 간의 상관관계는 .353이었고, 유형 1과 유형 3 간은 .603이었으며, 유형 2와 유형 3 간은 .524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형 1과 2는 비교적 독립적 관계를 나타내고 유형 1과 3, 유형 2와 3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나타내었다(표 1, 2).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요인가중치(factor weight)는 표 3과 같다. 전체 대상자 28명 중 유형 1이 11명(39.2%), 유형 2가 12명(42.9%), 유형 3이 5명(17.9%)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의 경우, 3학년은 7명(63.6%), 4학년은 4명(36.4%)이었으며, 임상실습은 대부분 2, 3차 혹은 보건소에서 진행하였다. 졸업 후 임상에 있기를 원하는 학생은 8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 1에 포함된 학생들 모두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며, 만족도는 9명(90.9%)이 임상실습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로 응답하였다.

유형 2의 경우 3학년이 9명(75.0%)이었으며, 유형 1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 3차 혹은 보건소에서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었다. 졸업 후 근무 희망기관은 7명(58.3%)이 임상을, 4명(33.3%)이 공무원(시청)으로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호학 전공(75%)에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학생은 41.7%로 나타나 유형 1과 2간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매우 두드러졌다.

유형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4명(80.0%)이 3학년이었으며, 유형 1, 2와 비슷하게 2, 3차 혹은 보건소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었으며, 모두 간호학에 대해 '만족한다'로 응답하였고, 임상실습의 경우 3명(60.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보고하였다.

표 1. 유형별 Eigen값과 변량 (*N*=28)

변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Eigen 값	9.5570	3.6056	1.4553
Variance (%)	0.3413	0.1288	0.0520
Cumulative variance	0.3413	0.4701	0.5221

표 2. 유형별 상관관계 (*N*=28)

변수	유형 1	유형 2
유형 2	.353	
유형 3	.603	.524

2. 유형별 특성

각 유형 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진술문에 대한 유형별 표준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유형별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그 유형의 뚜렷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유형 1의 경우, 문항 2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간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가 다른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형 1은 임상실습이 간호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길러 주고, 기본간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유형 2의 경우 문항, 31 '임상실습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가 다른 유형과 가장 뚜렷한 점수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이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결국 해소할 수 없었고, 임상실습에서 의료기구의 사용 미숙에 대한 걱정과, 임상실습의 불분명한 학습목표에 대한 불만, 학생간호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을 걱정하였다. 유형 3의 경우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교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30번 문항이 다른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대해 더 불편해 하였고 남자이기 때문에 간호 수행에 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유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을 '자기계발형', '취업수단형', '현실수용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유형별 진술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1) 유형 1: 자기계발형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 내에서 전형적 또는 이상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형 1은 대상자 13이 요인가중치가 2.2369로 유형 내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낮은 대상자의 요인가중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 유형의 Eigen 값은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9.5570으로 유형 1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부서를 발견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었고, 이론과 기술을 실제 적용하여 기본간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적극적인 기회를 갖고자하는 도전정신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실습을 통해 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환자를 위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환자를 위해 언행을 조심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한편, 남자라는 이유

표 3. P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유형별 요인가중치 (*N*=28)

유형	P 표본	연령	학년	임상실습 수행기관	졸업 후 근무 희망기관	학점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a]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a]	요인가중치
1	13	24	4	2차, 3차, 보건소	병원	2.5~3.0	2	1	2.2369
	10	23	4	2차, 3차, 보건소	병원	2.5~3.0	1	2	1.9066
	12	25	4	2차, 3차, 보건소	기타	2.5~3.0	2	2	1.5614
	14	24	3	2차, 3차	병원, 보건소, & 시청	2.5~3.0	2	2	1.4110
	20	24	3	2차, 3차, 보건소	병원	3.5~4.0	2	2	1.3192
	16	29	4	2차, 3차, 보건소, 학교	병원 & 산업체	3.0~3.5	1	1	1.2498
	3	23	3	2차, 3차	기타	3.0~3.5	2	2	1.0951
	6	24	3	2차, 3차	병원	3.0~3.5	2	2	0.8560
	1	23	3	2차, 3차	병원	2.5~3.0	2	3	0.7063
	4	25	3	2차, 3차	시청	3.0~3.5	2	2	0.5764
	24	24	3	3차, 보건소	병원 & 보건소	3.5~4.0	2	2	0.5052
2	28	25	3	3차	시청	3.5~4.0	3	3	1.8381
	23	24	3	2차, 3차, 보건소	시청	3.5~4.0	2	2	1.3100
	26	25	3	3차, 보건소, 기타	병원	3.5~4.0	3	3	1.0500
	15	28	3	2차, 3차	병원	3.0~3.5	1	2	0.9171
	2	22	4	2차, 3차, 보건소	병원	3.0~3.5	3	3	0.8680
	19	29	4	2차, 3차, 보건소	병원	3.0~3.5	2	2	0.8186
	22	21	3	3차, 보건소	시청	3.5~4.0	2	3	0.7299
	18	23	3	2차, 3차, 보건소	시청	3.0~3.5	2	3	0.7208
	7	24	3	2차, 3차	병원	3.0~3.5	2	3	0.6832
	5	24	3	2차, 3차	병원	2.5~3.0	2	2	0.6600
	11	24	4	2차, 3차, 보건소	병원	3.0~3.5	1	4	0.6148
	8	23	3	2차, 3차	보건소	2.5~3.0	2	2	0.4618
3	21	27	3	2차, 3차	병원	3.0~3.5	2	1	1.6337
	25	24	3	3차, 보건소	병원 & 시청	3.0~3.5	2	2	0.9654
	27	23	3	3차, 기타	병원	>4.0	2	3	0.8455
	9	25	4	2차, 3차, 보건소	병원	3.5~4.0	2	2	0.6399
	17	24	3	2차, 3차	병원, 산업체, & 시청	2.5~3.0	2	3	0.6154

2차=2차 병원; 3차=3차 병원; a: 1=매우 만족, 2=만족, 3=불만족, 4=매우 불만족.

로 차별, 따돌림, 힘든 일을 하게 되거나환자들이 싫어할 것에 대한 불안은 적었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선배간호사나 다른 직원과의 관계 형성도 원활하였다.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간호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Z=1.940)',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Z=1.515)', '임상실습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전정신이다(Z=1.468)', '임상실습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준다(Z=1.333)'고 하였다.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단순 보조업무 외에 실제 간호수행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Z=-1.768)', '남자 학생 간호사라는 이유로 간호 수행이 제한적이다(Z=-1.189)', '자신의 실수로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Z=-1.180)' 등이 있었다.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인 13번 대상자는 '군병원에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간호 수행과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 하였고,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서를 발견하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군병원에서 병원 환경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실수에 당황해 본 적은 없었고, 병원 위험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유형 1의 남자 간호대학생은 기본적으로 간호학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임상실습을 수행할 때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실습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 1을 '자기계발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4. 각 유형별 표준점수 (*N*=28)

Q	진술문	표준점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1	임상실습을 통해 적성에 맞는 부서를 발견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1.7	1.0	1.3
2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간호기술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다.	1.5	-0.8	0
3	임상실습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준다.	0.2	-0.9	-1.3
4	임상실습은 간호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	0.8	-0.1	-0.8
5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다.	1.3	0.5	1.2
6	임상실습은 병원 직원과의 협조 능력을 길러준다.	0.8	-0.1	-0.5
7	임상실습에 필요한 태도는 사랑과 환자를 위한 마음이다.	1.1	0.1	1.2
8	임상실습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1.4	1.6	1.2
9	임상실습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	1.3	0.7	1.4
10	임상실습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하는 도전정신이다.	1.3	-0.7	0.3
11	임상실습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던 부분을 이해시켜준다.	1.0	-0.1	1.2
12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다.	1.5	0.1	0
13	임상실습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다.	1.4	1.1	0.5
14	임상실습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기구의 사용 미숙이 걱정이다.	-0.7	0.8	-0.5
15	투약, 수혈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불안하다.	-0.6	-0.3	0.7
16	병원에서 방사선이나 핵의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에 노출될까 불안하다.	-0.9	-1.8	-0.6
17	선배 간호사와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 할까 걱정된다.	-1.4	-0.5	-0.7
18	왠지 모를 차별 대우를 받을까 같아 불안하다.	-1.7	-1.5	-1.6
19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일을 시킬까봐 걱정된다.	-1.9	-0.9	-0.9
20	실습조가 모두 여자라 왠지 따돌림을 당할 것 같다.	-1.8	-1.4	-1.9
21	자신의 실수로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0.1	1.0	1.5
22	환자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1.0	-0.6	-0.7
23	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다.	0.5	0.2	1.6
24	남자인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0.6	0.3	1.3
25	임상실습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0.5	-1.1	0
26	간호사를 돕고 간호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0.5	-0.9	-0.2
27	Case를 토대로 이론의 완성을 가져와서 기분이 좋다.	0.3	-1.2	-0.1
28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가 된듯한 느낌이다.	-0.3	-2.0	-0.9
29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불분명하다.	-0.6	0.7	-0.6
30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교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0.9	-0.8	-1.8
31	임상실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0.8	1.1	-1.6
32	단순 보조업무 외에 실제 간호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0.1	1.8	1.7
33	임상실습이 실습위주가 아닌 이론적 지식 전달 중심으로 진행된다.	-1.2	0.4	-1.7
34	남자라서 조그만 행동을 해도 눈에 띈다.	0.6	2.0	0.8
35	남자 학생간호사라는 이유로 간호 수행이 제한적이다.	-0.7	-0.4	0.5
36	여자 환자의 경우 남자 학생간호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0.6	0.3	0.8
37	임상실습은 보고서 작성과 실습 과제량이 많다.	0.1	2.0	0.5
38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수간호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0.5	-0.6	-0.6
39	환자나 보호자가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 귀찮아한다.	-0.5	-0.2	-0.6
40	남자 학생간호사는 여자 학생간호사보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0.1	0.9	0.5
41	환자들이 학생간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0.3	0.9	-0.3
42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 불편하다.	-1.1	-1.0	0.6
43	간호사의 교육의지 결여로 인해 방치되는 느낌이 든다.	-0.9	-0.3	-1.2

표 5. 각 유형별 Q 표준점수와 타 유형과의 차이 (*N*=28)

유형	항목	Q 진술문	표준점수	평균	차이
유형 1	2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간호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	1.529	-0.412	1.940
	12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533	0.018	1.515
	10	임상실습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하는 도전정신이다.	1.274	-0.194	1.468
	3	임상실습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준다.	0.207	-1.126	1.333
	4	임상실습은 간호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	0.783	-0.437	1.220
	28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가 된 듯한 느낌이다.	-0.267	-1.439	1.172
	25	임상실습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0.550	-0.568	1.118
	6	임상실습은 병원 직원과의 협조 능력을 길러준다.	0.796	-0.307	1.103
	26	간호사를 돕고 간호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0.516	-0.544	1.060
	27	Case를 토대로 이론의 완성을 가져와서 기분이 좋다.	0.348	-0.645	0.993
	34	남자라서 조그만 행동을 해도 눈에 띈다.	0.553	1.389	-0.836
	15	투약, 수혈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불안하다.	-0.643	0.230	-0.873
	14	임상실습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기구의 사용 미숙이 걱정된다.	-0.720	0.158	-0.878
	42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 불편하다.	-1.126	-0.188	-0.939
	19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일을 시킬까봐 걱정된다.	-1.891	-0.911	-0.980
	36	여자 환자의 경우 남자 학생 간호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0.612	0.509	-1.121
	37	임상실습은 보고서 작성과 실습 과제량이 많다.	0.116	1.241	-1.125
	21	자신의 실수로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0.073	1.253	-1.180
	35	남자 학생 간호사라는 이유로 간호 수행이 제한적이다.	-0.733	0.455	-1.189
	32	단순 보조업무 외에 실제 간호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0.050	1.717	-1.768
유형 2	31	임상실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1.071	-1.178	2.249
	33	임상실습이 실습위주가 아닌 이론적 지식 전달 중심으로 진행된다.	0.374	-1.414	1.788
	37	임상실습은 보고서 작성과 실습 과제량이 많다.	1.957	0.320	1.637
	14	임상실습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기구의 사용 미숙이 걱정된다.	0.777	-0.590	1.368
	29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불분명하다.	0.747	-0.596	1.343
	34	남자라서 조그만 행동을 해도 눈에 띈다.	1.988	0.671	1.317
	41	환자들이 학생간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0.915	-0.339	1.254
	32	단순 보조업무 외에 실제 간호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1.780	0.802	0.977
	43	수간호사의 교육의지 결여로 인해 방치되는 느낌이 든다.	-0.350	-1.046	0.696
	40	남자 학생간호사는 여자 학생간호사보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0.868	0.178	0.690
	23	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다.	0.204	1.045	-0.841
	7	임상실습에 필요한 태도는 사랑과 환자를 위한 마음이다.	0.135	1.141	-1.006
	26	간호사를 돕고 간호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0.883	0.155	-1.038
	16	병원에서 방사선이나 핵의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에 노출될까 불안하다.	-1.815	-0.774	-1.041
	11	임상실습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0.135	1.080	-1.215
	27	Case를 토대로 이론의 완성을 가져와서 기쁘다.	-1.165	0.111	-1.275
	25	임상실습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1.117	0.265	-1.382
	28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가 된 듯한 느낌이다.	-1.993	-0.576	-1.417
	10	임상실습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하는 도전정신이다.	-0.678	0.782	-1.460
유형 3	42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 불편하다.	0.589	-1.045	1.634
	15	투약, 수혈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불안하다.	0.732	-0.458	1.190
	23	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다.	1.554	0.370	1.184
	21	자신의 실수로 환자에게 해가 된지 않을까 걱정된다.	1.528	0.525	1.003
	36	여자 환자의 경우 남자 학생간호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0.751	-0.173	0.925
	24	남자인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1.270	0.496	0.774
	16	병원에서 방사선이나 핵의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에 노출될까 불안하다.	-0.629	-1.367	0.738
	11	임상실습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1.167	0.430	0.737
	18	왠지 모를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	-0.965	-1.601	0.636
	7	임상실습에 필요한 태도는 사랑과 환자를 위한 마음이다.	1.217	0.600	0.617
	43	수간호사의 교육의지 결여로 인해 방치되는 느낌이 든다.	-1.189	-0.626	-0.563
	41	환자들이 학생간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0.349	0.293	-0.643
	13	임상실습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다.	0.503	1.270	-0.767
	6	임상실습은 병원 직원과의 협조 능력을 길러준다.	-0.480	0.331	-0.811
	12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0.033	0.801	-0.835
	30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교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1.809	-0.898	-0.912
	3	임상실습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준다.	-1.315	-0.365	-0.949
	4	임상실습은 간호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	-0.814	0.362	-1.177
	33	임상실습이 실습위주가 아닌 이론적 지식 전달 중심으로 진행된다.	-1.669	-0.392	-1.277
	31	임상실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1.571	0.143	-1.715

2) 유형 2: 취업수단형

유형 2에서는 대상자 28이 요인가중치가 1.8381이었고, 요인가중치가 높은 대상자의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이 유형의 Eigen 값은 3.6056이며, 유형 2의 대상자들은 남자라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실습조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남자라서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반면에 남자라서 조그만 행동을 해도 눈에 띈다고 하였다. 실습에서 과제량이 많고 단순 보조업무를 주로 하여 실제 간호에 참여할 기회는 적으며, 실습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지시가 있다고 하였다. 실습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실습은 취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라 여겼으며,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서를 찾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실습에서 간호사가 된 듯한 느낌이나 간호이론의 완성, 자존감 형성은 기대할 수 없었고, 병원 내 위험물에 대한 노출을 걱정하지 않았다.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하게 긍정한 진술문으로 '임상실습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Z=2.249)', '임상실습이 실습위주가 아닌 이론적 지식 전달 중심으로 진행된다(Z=1.788)', '임상실습은 보고서 작성과 실습 과제량이 많다(Z=1.637)'고 하였다. 반면 강하게 부정한 진술문은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간호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Z=-1.518)', '임상실습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전정신이다(Z=-1.460)',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가 된 듯한 느낌이다(Z=-1.417)' 등이 있었다.

유형 2에서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인 28번 대상자는 '성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선생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실습 조에 남자가 한 명뿐이기 때문에 눈에 띄고 소문도 잘 나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학생간호사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없으며 간호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실습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며, 실습지에 배우러 가는 것보다는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러 가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유형 2의 대상자는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타 유형에 비해 낮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았다. 이들은 임상실습을 졸업과 취업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졸업과 취업을 위해서는 임상실습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습에 임하고 있으며,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목표, 수간호사의 높은 교육의지, 실습 중심의 임상실습, 실질적인 간호수행 등을 원하였다. 한편으로는 실습에서 무엇을 얻기보다는 병원 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수동적인 실습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존감 형성이 부족하고, 실습을 통한 간호의 완성 자체에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병원 환경의 위험물 노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고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실습에 임하였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현실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 유형을 '취업수단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3: 현실수용형

유형 3에서는 대상자 21이 1.6337로 유형 내 가장 높은 요인가중치를 보였다. 이 유형의 Eigen 값은 1.4553이었고, 유형 3의 대상자들은 43개의 진술문 내용 중, 남자 간호대학생은 자신들이 선택한 간호학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였고,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기술을 임상실습을 통해 적용하고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병원 환경에 맞게 적절히 적응하고 만족하는 소극적인 태도의 실습을 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실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유형 3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하게 긍정한 진술문으로 '남자가 왜 간호학을 선택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 불편하다(Z=1.634)', '투약, 수혈,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불안하다(Z=1.190)', '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다(Z=1.184)'고 하였다. 반면 강하게 부정한 진술문으로 '임상실습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Z=-1.715)', '임상실습이 실습위주가 아닌 이론적 지식 전달 중심을 진행된다(Z=-1.277)', '임상실습은 간호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1.177)' 등이 있었다.

유형 3의 대표성을 지닌 21번 대상자는 '간호 수행을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고, 간호사가 환자에게 대하는 태도로써 사랑과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자 간호대학생의 섬세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으나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유형 3의 특성을 보면, 간호학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유형 1에 비해 낮았다. 간호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유형 1과 달리 적극적이고 자기 발전적이지는 못하였다. 소극적인 실습 과정에서 불만족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실습을 통해 새로운 긍지와 자존감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만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형 3의 대상자는 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하는 마음

이 있었고, 실습 시 환자의 비밀유지가 중요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여자 간호대학생과의 관계형성도 좋으며, 실습지도 교수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임상실습에서 훈련생으로서 실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남자인 자신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간호의 완성에 다가감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였다. 유형 3은 유형 1과 유형 2의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형 2와 달리 부정적이지 않고 간호학과 임상실습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이나, 유형 1에 비해서는 활동성과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고 실습에서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현실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간 일치 항목

유형 간 일치항목이란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일치하는 항목으로 유형 1, 2, 3 간에 강하게 긍정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여준 항목을 보면, 남자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은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서를 발견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실습 시 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고, 환자를 위한 비밀유지와 언행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론적 지식을 임상실습에 적용하여 얻어진 간호기술을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임상실습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부서와 진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실습조가 모두 여자라 왠지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실습 시 여자 간호대학생과 왠지 모를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89.3%)이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임상실습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64.3%)이 만족하여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이 필요하다. 유형 별로 비교했을 때, 유형 1과 유형 3에서 모든 학생이 간호학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나, 유형 2에서는 간호학에 대해서 75%가 만족하였고, 요인가중치가 높은 대상자의 불만족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 유형 1은 90.9%에서 만족하였고, 유형 3은 60%에서, 유형 2에서는 약 41.7%가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유형 2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유형 1 '자기계발형'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가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이고, 환자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었다. 임상실습에서 기본간호 능력과 간호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였고, 간호 수행에 대한 도전정신과 자존감, 간호의 완성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 한편 남자라서 제한적일 수 있는 실습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습을 수행하여 자기계발과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유형 1은 박송자(1993)가 연구한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에서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의 태도와 유사하다. 스스로 좋아서 간호학을 선택하였고, 환자의 간호를 중요시 여기며, 성실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철학이 뚜렷한 유형이다.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 분류된 유형 1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에 대한 자기 목표가 확고하여,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간호학문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적극적이지만 성적인 낮은 유형 1에 포함되는 남자 간호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독려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지속시켜 학습적인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실습 초기에 각자의 능력에 맞는 목표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소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임상실습 간에 조화를 이루며, 실습을 통해 간호학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취업수단형'인 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간호학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비교적 학업성적은 좋은 편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현재 매우 소극적인 임상실습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간호학을 선택했을 때의 신념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일 수 있다. 가 변했거나, 학교 교육과 임상실습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형은 김명애, 김효은과 남승희(2001)의 연구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형'과 유사하지만, 박송자(1993)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유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김명애 등(2001)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이론과 실습 사이의 차이로 인해 실습에 대한 불만과 혼돈을 보였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본 연구의 유형 2와 다소 유사한 면이 있었고 박송자(1994)의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거나 표현을 적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이가 남자 간호대학생과 여자 간호대학생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추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 2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다

른 유형에 비해 낮았으며, 수동적인 태도로 실습에 임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았다. 또한 다른 유형에 포함된 대상자들과는 달리 학습동기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므로 전달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실습과제를 구성하거나 학습목표를 스스로 구상하도록 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과정에서도 간호행위 중심의 실습 과제를 개발하여 단순 보조업무보다는 실제적인 간호수행에 노출될 기회를 자주 제공해줌으로써 실제 간호 업무 수행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 전 다양한 임상 모형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수행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장비 조작 미숙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역할모델(role model)과 멘토십(mentorship)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도 빠른 적응과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학습동기를 고려한 교과과정의 운영이 유형 2에 포함된 학생들과 같이 임상실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학생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와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현실수용형'으로 분류된 유형 3은 유형 1과 같이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유형 2처럼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족도 있었다. 환자 안전사고나 자신의 실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는 다소 소극적이며, 임상실습이 간호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간호사와 환자에게 인정받고 기뻐하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는 다소 긍정적이면서 현실적이기도 하다. 박송자(1993)의 연구에서 세 가지 유형 중 '원만한 적응형'과 유사하고, 김명애 등(2001)의 연구 중에서는 '능력한계 체감형'과 거의 일치한다. 유형 3의 대상자에게는 임상실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익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도교수나 임상실습지도자의 감독 하에 실제 간호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등 임상 교육에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간호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지도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습자에게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하도록 공동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에 접근할 경우 혼자할 때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부족이나 동기부족 부분이 보완될 수 있고 공동 작업으로 인한 효과성 증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학습 모형인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유형 3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장에서의 개별적 프리셉터십을 통한 직접 임상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프리셉터십을 통한 개별적 지도와 그룹 문제중심학습은 유형 3의 소극적인 태도를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학습법에 대한 효과검증이 추후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박송자(1993)의 연구에서 대상자 대부분이 여자 간호대학생이었고 '원만한 적응형'은 56%, '나이팅게일 사회봉사형'은 28%, '현실적 직업추구형'은 16%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자기계발형'(39.2%)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박송자(1993)의 연구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던 '원만한 적응형'(56%)은 본 연구의 '현실수용형'(17.9%)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송자(1993)의 연구에서는 분류되지 않은 '취업수단형'(42.9%)의 높은 분포도 큰 차이점이었다. 이러한 차이나는 결과들은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자 간호대학생보다 현실 순응적이고 원만하게 실습을 수행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간호학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이 있는 취업 중심적인 유형의 비율과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기발전적인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김명애 등(2001)의 연구에서 '적극적 참여형'은 18%, '이상/현실 괴리형'은 48%, '능력한계 체감형'은 33% 분포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분류된 태도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이며 취업중심적인 응답을 특징으로 하는 '취업수단형'(42.9%)은 '이상/현실 괴리형'(48%)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고, '현실수용형'(17.9%)은 '능력한계 체감형'(33%)과, '자기계발형'(39.2%)은 '적극적 참여형'(18%)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며 유형별 분포는 차이가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비교할 때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자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에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유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계발형'에 속하는 남자 간호대학생은 간호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간호 영역에서 장차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인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남자 간호대학생을 훌륭한 전문직 간호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 방법에서 각 유형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여자 간호대학생과 차이나는 분포를 보인 '취업수단형'이 좀 더 적극적이고 높은 자긍심을 가진 '자기계발형'으로 변화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전략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남자 간호학생의 학업과 임상실습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Stott (2007)는 남자 간호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남학생이 임상 실습에 적응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간호 교육자는 성별에 따라 학업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남학생의 경우 실제 임상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안정감과 전문성을 경험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남학생들의 유능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추후 남자 간호학생의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례중심의 실습과제와 자기주도적 실습운영이 남자 간호학생의 간호학문에 대한 태도변화와 유형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4년제 간호학과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에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남자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P 표본이 가지는 주관적 생각을 Q 소팅을 통해 분류할 때 찬성, 중립, 반대의 삼분화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진술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Q 분류 분포도에서 양 극단이 다소 두툼하고 분포의 모양이 다소 납작하여 분포의 양극단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개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좀 더 풍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Q 소트 분포 모양의 양극단의 항목 수를 2개 이상으로 하여 변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Q 모집단의 체계적인 표집을 위해 각 주제 범위 안에서 연구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진술문을 선정하였으나 더 정교한 진술문 선정을 위해 각 범주로부터 비례적으로 진술문을 선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로 남자 간호학생의 간호학에 대한 인식과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유형을 분석하여 태도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유형은 자기계발형, 취업수단형, 현실 수용형 3가지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을 고려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향상 및 간호학문에 대한 긍정적 사고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고려해 볼 때 첫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태도 유형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향후 남자 간호대학생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권인수(2002).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 706-715

김명애, 김효은, 남승희(200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유형: Q 방법론적 접근. *성인간호학회지, 13*, 327-339.

김헌수, 원유미(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홍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홍규(2007). P 표본의 선정과 Q 소팅. *주관성연구, 5*, 5-19.

두정현, 김윤숙(2008). 남자 간호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주관적 구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 167-175.

박송자(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대한간호학회지, 23*, 544-554.

이경희(1997). 남자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대구과학대학논문집, 21*, 255-273.

이정섭, 김남정, 두정현, 안지연, 이윤경(2005). 남자 간호학생의 학과 적응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4*, 159-169.

정규숙(2012, 5월 10일). *남자간호사 배출 현황-면허취득자 총 5183명 최근 5년 사이 크게 늘어. 대한간호협회 간호뉴스*. Retrieved May 11, 2012, from http://www.koreanurse. or.kr/

최선주, 정양숙(2008). 여자간호대학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남자 간호대학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구과학대학논문집, 29*, 291-325.

Clementson, R. (2008). Men in nursing. *Nursing Journal North-Tec, 12*, 35-43.

O'Lynn, C. E. (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 229-236.

Roth, J. E., & Coleman, C. L. (2008). Perceived and real barriers for men entering nursing: Implications for gender diversity.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 148-152.

Stephenson, W. (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Psyachological Record, 32*, 235-248.

Stott, A. (2007).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7*, 325-332.